

한국 현대희곡에 반영된 성리학적 세계관 연구*

—오태석 · 신명순 · 이윤택의 희곡을 중심으로—

임 준 서**

차 례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3. 자효(慈孝)의 사상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4. 충(忠)의 사상과 권력의 변증법
5. 의(義)의 사상과 양가주망의 논리
6. 맺음말

I. 문제제기

한국 현대희곡의 팔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는 '전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이식문화론에 입각해 전통을 부정했던 근대와 달리, 1960년대 이후의 희곡은 한국 고유의 전통적인 연희양식을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전통은 배척과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수용과 계승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이른바 '전통의 현대적 계승'이 현대희곡의 주요 과제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전통과 관련한 작금의 연구는

* 이 논문은 2003년도 고려대학교 BK21 한국학 교육·연구단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고려대·숭실대 강사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편향성을 보인다.

우선 ‘형식 편향’의 연구풍토를 지적할 수 있다. 전통의 수용과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탈놀이, 굿, 판소리 등 전통극의 형식이 어떻게 오늘날의 무대에 접목될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쪽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지나치게 형식의 측면에만 주목하는 연구풍토는 전통의 개념을 기형화하기 쉽다. 특정한 형식을 배제한 상위의 원리, 즉 세계관과 삶의식으로서의 전통 개념이 간과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비대해진 형식연구에 비해 주제연구는 빈약한 것이 현주소이다.

‘민속 편향’의 연구풍토 또한 문제이다. 형식연구에 있어서도 그간의 연구는 주로 민속연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배경에는 전통개념을 지배계층의 상층문화가 아니라 피지배계층의 기층문화에서 찾으려는 민중사관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교문화’, ‘양반문화’라는 말처럼, 정작 오늘날 한국인의 전통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지배적인 요소는 유가사상이 아닌가.¹⁾ 민속 편향의 연구풍토는 우리 고유의 상층문화이자 보편적 이념형을 외면함으로써 전통의 개념을 축소시킨다.

전통연구의 이러한 편향성은 아직도 유교문화에 대한 뿌리깊은 피해의식이 우리에게 잔존해 있음을 시사한다. 조선조의 봉건적 유가윤리는 계승의 대상이 아닌 청산의 대상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유교담론은 이러한 논리를 수정하게 한다. 이 논의에 따르면, 서구의 잣대에 맞춰 동양의 세계관을 폄하하는 태도야말로 ‘우리 안에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이다. 오히려 후기 산업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유교 전통을 적극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²⁾

1) 미야지마 히로시(宮島博史)에 따르면, 한국은 동북아 제국 가운데서도 유교의 영향을 가장 깊이 받은 곳이다. 조선조 이래 유교의 가르침은 단순한 통치이념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보편적인 관습으로 자리잡았다. 그는 자신의 현지 답사경험을 근거로, 이러한 유교적 전통이 오늘날에도 남북한 사회 전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미야지마 히로시, 『양반』, 노영구 옮김, 강, 1996, 19~27면 참조.)

2) 이승환, 『유교담론의 지형학』(푸른숲, 2004), 17~42면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전통의 중추개념을 ‘성리학적 세계관’으로 전제하고, 이러한 전통이 현대회곡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그 반영의 결과, 해당 작품이 과연 얼마나 탈근대적 전망을 적절히 선취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문학연구에 있어서 전통 계승의 바람직한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형식 편향, 민속 편향의 풍토를 교정하여 전통 연구의 균형 감각을 되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한국에서 유교적 전통이 뿌리내린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서이다. 조선의 유학은 ‘성리학(性理學)’으로 대변된다. 성리학은 중국 송대(宋代)의 주희(朱熹)에 의해 확립된 유가이론이다. 공자 이래의 중국 유학을 주희가 집대성하여 철학적 체계를 세운 것이다. 성리학은 리(理)·기(氣)의 개념을 중심으로 우주의 생성원리와 인간 심성의 구조, 사회윤리 등을 설명한다. 때문에 전시대의 유학과 달리 형이상학적이고도 실천철학적인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³⁾ 성리학은 조선조에 들어 관학화(官學化)됨에 따라 중세의 대표적인 형이상학이자, 정치철학이요, 윤리학으로 자리잡았다. 조선은 성리학의 철학체계를 바탕으로 왕도정치(王道政治)를 구현함으로써 유교적 이상국가를 건설하려 하였다.

유교문화의 계승을 둘러싼 논의는 1997년 계간 『전통과 현대』의 창간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이 잡지의 창간사에 따르면, 전통계승이란 일제기를 거치며 단절되었던 조선과 대한민국의 문화적 적통성을 다시 잇는 작업이다. (『창간사』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담론의 정립을 위하여, 『전통과 현대』 창간호, 1997, 20면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통계승의 요체는 곧 조선조 유교문화의 계승에 있다. 따라서 현대회곡의 전통계승 노력이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유교전통의 가치와 그 예술적 형상화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431~433면 참조.

성리학을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논리는 ‘이기론(理氣論)’이다. 성리학에서의 리(理)는 우주만물을 지배하는 근원적 법칙, 혹은 원리를 가리킨다. 반면 기(氣)는 원리 혹은 법칙으로서의 리(理)가 현상으로 드러나기 위해 깃들이는 ‘질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리와 기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리학은 우주만물의 생성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⁴⁾ 그런 점에서 리와 기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형상’과 ‘질료’의 개념과 상통한다. 그리스시대 이래 서구의 철학이 이원론적 체계를 발판 삼아 발전한 것과 같이 성리학 또한 이원론을 통해 철학적 토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형이상학으로서의 이기론이 사회적 인간관계로 확대될 때 윤리학이 성립된다.

유학이 궁극적으로 표방하는 인간은 ‘윤리적 인간(homo ethicus)’이다. 성리학의 이기론은 현실의 윤리적 규범을 세우기 위한 선험적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다. 윤리의 범주에서 리(理)와 기(氣)의 개념은 선(善)과 악(惡)의 개념으로 치환된다. 우주의 제1원리로서의 리(理)는 불변성과 순수성을 고유한 특성으로 가지는 까닭에 절대선(絶對善)의 상태에 있다. 반면 질료로서의 기(氣)는 가변성과 불순함을 특성으로 하는 까닭에 불선(不善), 즉 악(惡)의 상태에 있다. 따라서 군자는 부단한 수양을 통해 기(氣)의 마음에서 벗어나 순수 선인 리(理)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주자가 언급한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의 심성 개념은 바로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⁵⁾

결국 리(理)는 그 순수함으로 인해 선(善)의 환유가 되며, 기(氣)는 그 불순함으로 인해 악(惡)의 환유가 된다. 그리하여 선한 리(理)가 악한 기(氣)를 적절히 다스릴 때에만 사회윤리가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4) 김형찬, 「理氣-존재와 규범의 기본개념」,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47~48면 참조.

5) 본연지성은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에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심성으로, 순수 리(理)만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반면 기질지성은 인간이 태어난 이후 갖게 되는 심성으로, 리(理)와 기(氣)가 뒤섞인 상태이다.

이강대, 『주자학의 인간학적 이해』, 예문서원, 2000, 82~84면 참조.

리기의 관계에 대한 성리학의 해석은 일의적(一義的)이지 않다. 특히 조선의 유학은 리를 우위에 두는 ‘주리론’(主理論)과 리기를 수평관계로 보는 ‘주기론’(主氣論)으로 나뉘어 대립한다. 그 대립은 사단칠정론쟁(四端七情論爭), 인성물성동이론변(人性物性同異論辨) 등의 철학적 논쟁을 낳고, 이것이 다시 현실정치로 확대되어 숭한 당쟁과 사화를 낳았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성리학자들의 일관된 목적은 ‘윤리적 인간의 배양’을 위한 강력한 실천규범을 확립하는 데 있었다.

정리하면, 성리학적 세계관은 리기의 형이상학적 개념과 그 실천규범으로서의 윤리적 개념들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기론을 준거로 삼아 유가윤리의 중추개념인 효(孝), 충(忠), 의(義)의 텍스트 반영양상을 의미론적으로 분석하고,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분석대상은 오태석의 「부자유친」, 신명순의 「전하」, 이운택의 「시골선비 조남명」이다.⁶⁾ 세 작품은 모두 조선조의 역사현실을 다룬 희곡으로, 각각 효·충·의의 유가사상을 뚜렷이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60년대 이래 전통담론을 주도해온 극작가들의 대표작으로, 유가사상의 수용태도 면에서 일정한 편차를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들 작품은 전통담론의 추이와 전망을 가늠하는 데 유용한 표본이 되어준다.

3. 자효(慈孝)의 사상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오태석의 「부자유친」(1987)은 ‘임오화변(壬午禍變)’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혜경궁 홍씨를 해설자로 등장시켜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죽음을 조명

6) 본문에서 인용할 텍스트의 출처는 아래와 같다. 이하 본문에서는 편의상 인용문의 면수를 생략하기로 한다.

오태석, 「부자유친」, 『오태석희곡집2』, 평민사, 1994.

신명순, 「전하」, 『신명순 희곡집1-우보시의 어느 해 겨울』, 예니, 1988.

이운택, 「시골선비 조남명」, 한국연극협회 편, 『2001년 한국대외희곡선』(제6집), 집문당, 2001.

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의 내용은 『한중록(閑中錄)』에 직접적으로 근거한다. 그러나 서사의 무게중심은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재현하는 데 놓여 있지 않다. 그보다 작가는 드러난 사실의 이면에 숨은 진실, 즉 중세적 세계관의 균열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그 균열상은 구체적으로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을 통해 제시된다.

이 희곡은 총 여섯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순왕후의 가례에서부터 사도세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추이를 장면별로 나누어 묘사하고 있다. 사건 전개에 주된 동인(動因)은 영조와 사도세자 간의 갈등이다. 첫 장면에서 영조는 51세 연하의 정순왕후와 가례를 올린다. 여기서 영조의 재혼은 상징적이다. 엄연히 대를 이을 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후손을 위해 재취를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영조가 세자를 '심리적으로 살해'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세자 : ……내게 몫쓸 병이 들어 죽일 놈의 자식이 있는데 그놈을 죽이고 나면 내가 자식이 또 하나 필요하고 그럼 내가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내가 연로하여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가 없노라. 이 지통한 일을 어찌하면 좋다는 말이냐…….

이때 영조의 말은 사도세자의 입을 빌어 제시된다. 세자는 영조의 말투를 흉내냄으로써 부친의 숨은 의중을 풍자한다. 그 의중은 한마디로 살의(殺意)이다. 영조에게 사도세자는 '죽일 놈의 자식'인 것이다. 그렇다면 영조가 세자에게 살의를 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세자의 '병' 때문으로, 그 병은 '사람 죽이는 병'이다. 이 또한 영조의 입이 아니라 세자의 입을 통해 간접화법으로 전달된다.

세자 : 사람 죽이는 병이다. 경진년 이후 내관 나인 합해서 이놈의 손에 상한 자가 하도 많아서 기억이 잘 되지 않는다. 內司次知 서경달이 생각나고 출입번 내관이 여럿 결단났고. (킬킬거린다.) 선희궁 제 어미의 나인도 갖다가 결단을 내고 장남도 갖다가 점치라 해서 말을 잘 못하면 죽여 내보내고 의관 역관 액숙. 아이고 하루에도 대궐 밖으로 죽여 내보내는 것이 여럿이

되니 궁 내외 인심이 횡횡하여 누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 벌벌 떠는 지경이라 내 이놈을 살려둘 수가 없노라.

세자에 대한 영조의 증오는 ‘처벌’의 의미를 가진다. 세자의 광패한 행동에 대한 일종의 응징인 셈이다. 대상을 가리지 않는 세자의 살인은 작품에서 ‘병’, 일종의 정신병으로 묘사된다. 정신질환은 현실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반사회적이다. 따라서 영조의 입장에서 볼 때 세자의 병은 위협적이다. 유가사회의 근간인 가족질서를 뿌리째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측근을 살해한 세자의 칼날은 언제라도 아버지 자신에게로 돌려질 수 있다.

영조의 이런 의심은 다섯 번째 장면에서 가시화된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폐위시키는 자리에서 세자가 ‘효복(孝服)과 저장(菹杖)을 토굴 속에 넣어둔 일’을 문제삼는다. 세자는 돌아가신 왕후마마를 추모하는 뜻에서였다고 답변하지만, 영조는 이를 믿지 않는다. 대신 영조는 “매일 밤 토굴 속에 들어가서 상복을 입고 나를 저주하였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언급에서 우리는 영조의 내면 깊이 은닉된 ‘거세공포’를 읽을 수 있다.

『한중록』에 의하면, 영조의 정치역정은 간난의 연속이었다. 신임사화, 무신역변 등 술한 정쟁을 겪으며 왕위에 올랐고, 즉위 후에도 노론과 소론 사이에서 전정궁궁하는 나날을 보내야 했다. ‘사(死)’자와 ‘귀(歸)’자를 극도로 꺼리며, 불길한 말을 듣고 난 뒤엔 반드시 양치를 하고 귀를 씻을 정도였다.⁷⁾ 이처럼 당대의 살벌한 정치현실은 영조의 내면 깊이 거세공포를 심어놓았고, 이 때문에 그는 아들조차 정적(政敵)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애의 자리에 증오의 감정이 대신 들어서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영조 또한 세자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파라노이아의 상태에 있다.

이런 거세공포에 대한 보상심리로 영조는 아버지로서의 힘과 권위에 집착한다. 그리고 이러한 집착은 아들에 대한 과잉억압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영조는 신하들과 강학(講學)할 때면 어린 사도세자를 불러, 고의로

7) 혜경궁 홍씨(이선형 옮김), 『내 붓을 들어 한의 세월을 적는다』 한중록, 서해문집, 2003, 113면 참조.

어려운 글의 뜻을 몰었다고 한다. 세자가 대답을 못하고 주뻗거리면 신하들 앞에서 심하게 꾸짖하고 흉을 보았다.⁸⁾ 이러한 영조의 과잉억압은 다시 사도세자의 마음에 '거세 공포'를 심는다. 세자의 마음엔 효성(孝誠) 대신 살의(殺意)가 들어선다. 그 결과가 세자의 패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결국 인원왕후의 나인 병애를 취하거나 조신들을 참하는 세자의 광패한 행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야기된 살부의식(殺父意識)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⁹⁾

2장에서 묘사되는 '의대증(衣帶症)'은 세자의 이러한 콤플렉스를 잘 보여준다. 의복을 갖추는 행위는 자식으로서의 예의, 즉 부권에 대한 복종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친의 부름에 세자가 옷 입기를 거부하는 것은 곧 부권에 대한 도전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자신을 억압하는 부친에 대해 세자는 자식으로서의 직분을 거부함으로써 상징적인 저항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앞서 영조의 어투를 흉내내는 사도세자의 언술은 일종의 '복화술(腹話術)'이다. 타자의 위압적 권력을 내면화함으로써 스스로 권력의 주체가 되려는 무의식적 표현인 것이다.

이처럼 영조와 사도세자는 모두 심각한 심리적 질병상태에 놓여 있다. 아버지의 거세공포가 아들에게로 유전되면서 왕실은 피의 악순환을 거듭한다. 부자의 관계는 애정의 관계가 아니라 사도-마조히즘의 관계로 묘사된다. 이러한 묘사에서 우리는 유가사상에 대한 작가의 특정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작가는 왕과 세자 간의 병적인 관계를 통해 유가윤리 자체에 내포된 근본적인 모순을 문제삼는다. 즉 유가의 가족윤리는 지배-피지배의 억압적 권력관계를 합리화하는 사상적 토대이며, 윤리적 실천의 강조를 통해 이러한 권력관계를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8) 위의 책, 110~111면 참조.

9) 이 작품이 프로이트의 시각에 입각해서 구성되었음은 다음과 같은 작가의 고백에 서도 엿볼 수 있다. "부자관계가 그렇게 미묘한 건데 제 경우에는 부친이 일찍이 납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진짜 싸움을 못해봤어요. (중략) 그러니까 그런 방면에 목마름 같은 게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 갈증을 작품으로 옮긴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영조와 사도세자간의 대결을 꾸며보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오태석·서연호 대담, 『오태석 연극: 실험과 도전의 40년』, 연극과인간, 2002, 130~131면)

그리하여 작가의 관심은 유가윤리에 대한 풍자로 모아진다. 프로이트의 시각을 빌려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를 조명함으로써 작가는 유가윤리의 위선적인 성격을 폭로하고 야유한다. 이러한 의도는 영조가 사도세자를 폐위시키는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 영조는 광패(狂悖)를 이유로 세자를 폐위하는 반교문을 내리는데, 이 대목은 유가윤리의 허위의식을 부각시킨다. 서로 상처내고 상처입는 병적인 부자관계는 여기서 윤리의 명분으로 철저히 위장된다. 영조는 반교문에서 사도세자에 대한 폐위 조치가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부정(父情)의 소산임을 누누이 강조한다.

세자의 광패함은 지난 역사에도 없는 바이다. 종묘와 사직을 위하여 어찌 한번 달래보고 싶지 않았겠는가. 지금까지 마음만 졸인 것도 자애의 뜻이 있음으로서였다. 이제 만고에 없는 倫尙이 변고에 이르렀게 오늘 휘령전에 알리고 나서 폐위하는 교지를 내리노라. (……) 아 들이 광패함으로 하여 밤낮으로 종사와 생민을 위하여 마음을 조였노라. 짐에게는 부자간의 인륜이 있음으로서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반교문에 언급된 ‘부자유친(父子有親)’은 원래 삼강오륜의 하나로, 유가 윤리의 으뜸 덕목인 자(慈)와 효(孝)를 표현한 문구이다. 가족윤리에 기반한 유가는 윤리의 제1덕목을 부자간의 윤리에서 찾고 있는데, 그 덕목이 곧 ‘자(慈)’와 ‘효(孝)’이다. 자와 효는 ‘생명의 시간적 인과율을 지배하는 원리’로, ‘덕성의 근본이자 모든 교화가 우러나오는 원천’이다.¹⁰⁾ 문제는, 이 자와 효의 윤리관에 작용하는 권력성이다. 자효의 윤리는 서열관계에 기초한 차별구조를 합리화하는 데 동원되기 쉽다.

자(慈)와 효(孝)의 개념은 원래 리(理)와 기(氣)의 개념에서 유래한 것이다. 리(理)란 우주의 생성원리로서의 불변적인 형식을 뜻하며, 기(氣)란 이가 작용하는 가변적인 질료를 의미한다. 이 두 개념 중 조선의 성리학은 리를 우선시하는 ‘주리론(主理論)’의 입장을 지향했다. 불변적이고 절대적인 원리로서의 리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현상으로서의 기를 지배하고

10) 김충렬, 『중국철학산고(1)』, 온누리, 1988, 88~89면 참조.

통제할 때야 인간은 선한 본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리학은 리가 우위에 서서 기를 다스리는 우열관계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리기의 우열관계는 자효의 관계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자효(慈孝)의 개념은 형이상학으로서의 이기론이 가족윤리의 범주에 적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자(慈)의 개념이 리(理)에 해당한다면, 효(孝)의 개념은 기(氣)에 해당한다. 아버지는 자손에게 불변의 형상을 부여하는 형식원리, 즉 '씨앗을 가진 자'이며, 아들은 이 씨앗을 부여받은 가변적인 질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들이 성장하여 자신과 같은 불변의 형상인자로 독립하기까지 아버지는 아들을 무단히 훈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때 자와 효의 가족윤리는 사도-마조히즘의 병적인 권력기제를 낳기 쉽다. 그리하여 현실의 억압적 계급구조를 합리화하는 논리적 토대로 기능할 위험에 처한다. 어찌 보면 유가윤리는 이러한 권력성을 도덕적으로 합법화함으로써 백성들을 봉건체제에 순치시키는 데 기여한 측면이 없지 않다. 「부자유친」은 영조와 세자의 광기(狂氣)를 통해 유가윤리에 내포된 이 권력성을 첨예하게 부각시킨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대목은 유가윤리의 폭력성과 도착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종묘사직」을 내세워 아들을 살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들보다 더 지독한 미치광이의 모습으로 조명된다.

영조 : …내가 죽으면 삼백년 종사가 망할 것이나 네가 죽으면 종사는 보전될 것이다 이놈.

영조의 이 마지막 대사는 작품의 메시지를 웅변해준다. 요컨대 오태석의 「부자유친」은 성리학적 가족윤리의 허구성을 패러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리기의 관념에 기초한 가족주의가 얼마나 끔찍한 패륜을 낳을 수 있는지를 통렬하게 꼬집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작품의 발표시기인 80년대의 시대상황과 맞물려 초연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군사정권의 억압에 신음하던 정치현실에 대한 또 다른 패러디로 읽혔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공을 넘나드는 개방적인 무대구성, 탈을 이용한 이승과 저승의 결

합 등 표현형식의 면에서 이 작품은 전통연회의 양식을 성공적으로 계승한 사례로 평가받는다.¹¹⁾

그러나 이 작품의 전통계승 노력은 전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양식의 면에서만 성공적으로 전통을 계승하고 있을 뿐, 세계관의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유가윤리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근본적으로 부정적이다. 유교윤리의 역기능만을 부각시킬 뿐 순기능을 보지 못한다. 그에게 유가윤리는 ‘탈근대적인’ 윤리가 아니라, ‘전근대적인’ 윤리일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작가의식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유가윤리의 해악으로 지목되는 가부장적 권력성은 오히려 서구의 근대철학에서 훨씬 극심하다. 자기동일성에 기초한 서구 근대사상은 철저하게 타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논리에 의해 작동한다.

하지만 ‘절대개인’의 관념에 기초해 분리와 소외를 조장하는 서구 근대사상과 달리, 유가사상은 ‘간(間)주관적인 존재’를 표방한다. 유가전통에서 절대개인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인간은 항상 타자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는다.¹²⁾ 그런 점에서 유가윤리는 인간 상호간의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화합과 연대를 강조한다. 이러한 상호 유대관계의 뿌리가 바로 ‘가족’이다. 자식이 자식답기 위해서는 부모 또한 부모다워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효로 대변되는 유가의 가족윤리는 상보적인 호혜주의이지 일방적인 권위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보성은 유가윤리의 탈근대적 가치를 입증하는 것으로, 오늘날 포스트구조주의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부자유친>은 유가사상에 대한 이 같은 류의 새로운 인식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 오히려 서구 근대 형이상학에 기반한 프로이트의 논리에 편승해 유가사상의 본질을 왜곡한다. 그리하여 유가윤리의 이념적 진실보다는 그 일탈적 현상만을 부각시킨다. 병적 심리의 표현, 광기 그 자체의 표현에만 집착한다. 그런 점에서 유교전통에 대한 작가의 시선은 대단히 자학적(自虐的)이다.

11) 오태석·서연호 대담, 앞의 책, 136면 참조.

12) 함재봉, 『탈근대와 유교』, 나남출판, 1998, 260면 참조.

요컨대 이 작품의 표현형식은 새롭지만, 그 속에 담긴 주제의식은 낡고 타성적이다. 문학의 진정한 창의성은 ‘인식의 새로움’이 표현의 새로움으로 이어질 때 얻어진다. 근대극복의 대안으로서 유가전통을 새롭게 조명하지 못한 점은 이 작품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이다.

4. 충(忠)의 사상과 권력의 변증법

신명순의 「전하」(1962)는 계유정란(癸酉靖亂)을 다룬 회곡이다. 계유정란은 우리 현대문학사에서 역사물의 단골 소재로 애호되어 왔다. 이광수의 『단종애사』와 김동인의 『대수양』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들 소설은 각각 단종과 수양대군의 시각에 무게중심을 두고 계유정란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역사를 보는 사관에 따라 객관적 사실이 얼마나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말해준다. 같은 맥락에서 「전하」는 역사적 진실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교실이고, 등장인물은 학자와 그 제자들이다. 이들은 세조의 왕위찬탈을 둘러싼 해석을 놓고 대립한다. 이들의 화두는 ‘과연 충신과 역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로 요약된다. 이에 대한 객관적 답을 구하는 과정이 곧 작품의 구조적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를 객관적으로 조명하고자 하는 태도에는 근본적으로 ‘쓰여진 역사’에 대한 불신 내지 회의가 전제되어 있다. 작품의 도입부에서부터 이 점은 뚜렷하게 지적된다.

학자 : ...나는 어느 편이 옳고 어느 편이 그르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어. (중략) 결국 역사는 영원한 암흑일세. 사건이 발생한 지 이미 5백 년이 지났고 그들의 뼈는 땅 속에 묻혀 이제는 흔적조차 찾을 길 없으니 불가불 우리는 있었던 사실 위에서 가능한 한 성실의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단 말이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참으로 한 인간의 가슴 속 깊이 담겨 있는 하나의 깨트릴 수 없는 진실. 우리가 지금 연구하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진실일세! 왜

나하면 역사는 왕왕 자체의 타당성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기 때문일세.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특정한 정치적 담론에 의해 자의적으로 '구성된 텍스트(Text)'이다. 때문에 본래의 사실은 당대 지배권력의 논리에 의해 굴절되거나 왜곡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학자는 구성된 텍스트의 이면에 가려진 역사의 원(原)텍스트를 복원하고자 한다. 그 복원의 방법으로 작품에 도입되고 있는 것이 '극중극(劇中劇)'의 기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극중극의 기법은 역사의 이면에 감추어진 글씨를 되살려줄 '양피지'와도 같다.

극중극은 연극 속에 또 다른 연극이 삽입되는 형태를 말한다. 극중극의 연극놀이는 등장인물을 배우와 관객으로 이분화시킨다. 연기하는 자와 관람하는 자의 시선이 무대 위에 동시에 구현된다. 따라서 무대에는 대상에 대한 비평적 거리가 조성되며, 이를 통해 대상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연극적 재현의 방법을 통해 배우들은 역사를 살아있는 실체로 체험한다. 그런 점에서 극중극은 강력한 교육적 효과를 발휘한다. 교실수업에 연극이 도입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작품에서 극중극의 연극놀이는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수정하고 그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연극은 세조 즉위 1년 성삼문 등이 역모죄로 체포되는 데서 시작된다. 학생들이 맡는 주요 역할은 '세조', '성삼문', '신숙주', '윤씨'의 네 인물이다. 이들의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연극은 전개된다. 갈등의 축은 크게 두 인물군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세조와 신숙주, 성삼문과 윤씨가 각각 한 쌍으로 묶일 수 있다. 세조와 신숙주가 혁명세력이라면, 성삼문과 윤씨는 보수세력을 대변한다.

성삼문은 세조의 회유를 거절하며 죽음을 택한다. 신숙주의 부인 윤씨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한다. 그리하여 남편 신숙주에게 성삼문을 따라 명예로운 죽음을 택할 것을 권유한다. 그러나 신숙주는 오히려 혁명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세조의 입장을 옹호한다. 결국 신숙주는 세조의 신하로 남게 되고, 윤씨는 자결의 길을 택한다. 신숙주와 윤씨의 갈등은 연극의

서브 플롯을 형성하며 메인 플롯의 주제를 강조한다. 부부 간의 갈등은 군신 간의 갈등을 거울처럼 반영하며 그 대립관계를 일층 부각시킨다.

부인 :그들은 당신을 역적이며 약탈자인 수양의 종이라고 불려요.

숙주 :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들은 뿌리깊게 옛날에 집착하고 있어. 새로운 일이, 그들의 주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배해온 것은 무기력이야. 병적인 맹종이야. (중략).....

부인 : 혼잡을 피한 것뿐이에요.

숙주 : 이 나라는 진보적인 혁신이 필요해.

부인 : 수양대군께서는 파괴와 약탈만을 일삼았어요.

연극놀이를 통해 세조와 신숙주, 성삼문에 대한 학생들의 판단은 동요한다. 같은 사건을 두고 상반된 해석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양쪽은 제 나름의 타당한 논리적 근거에 입각해 있다. '명분론'과 '실리론'이 그것이다. 때문에 학생들의 판단력은 혼란에 빠지고 일종의 '도덕적 판단중지'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사육신으로 추앙받아온 성삼문이 관습에 집착하는 보수적인 원칙주의자로 매도되는가 하면, 세조와 신숙주는 내란과 외세로부터 나라를 구하려는 진보적인 지식인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혼란은 급기야 충신과 역적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

윤씨 : 그들은 폭군에 저항했어요. 그분들은 옳은 일을 위해 죽었어요.

숙주 : 어리석은 죽음이야. 그들의 죽음이 백성과 자신에게 감상적인 동정을 불러일으켰을 따름이지.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었어.

윤씨 : 당신이 하신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던가요?

숙주 : 그들이 죽은 건 명예 때문이야. 그들은 단 한 가지 일밖에는 몰라. 충성이란 어리석은 이름을 지킨다는 것이 그들에게 명예심을 불러일으켰어. 그들은 죽었어. 그런데도 결국 올바른 일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나이 어린 아이에 대한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 죽은 거야.

신숙주의 발언은 '충(忠)'의 관습적 의미를 뒤엎는다. 그렇다면 유가윤리에서 충(忠)이란 어떤 개념인가. 그것은 효(孝) 개념이 정치적 영역으로

확장될 때 성립된다. 즉, 가족적 부자 관계가 정치적 군신 관계로 전이된 것이 충인 것이다. 효가 시간적 존재로서의 도덕원리라면, 충은 공간적 존재로서의 도덕원리이다. 충은 엄밀히 말해 ‘충서(忠恕)’를 가리키는 것으로, ‘개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타재(他在)로 추급하는 과정, 즉 타재의 넓은 세계를 자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¹³⁾ 조선 유학에 있어서 충은 효와 마찬가지로 이기론(理氣論)에서 유추된 하위개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기론은 우주를 리(理)와 기(氣)의 변증법적 길항관계로 설명한다. 이 이기론이 정치의 영역에 작용할 때 그것은 왕과 신하의 관계를 규정하는 질서가 된다. 즉 왕이 절대불변의 항수인 리(理)에 해당한다면, 신하는 이 불변의 이치를 실어 현실에 구현하는 변수로서의 기(氣)에 대응한다. 따라서 군신 관계 역시 부자 관계와 마찬가지로 우열의 서열을 내포한다. ‘불사이군(不事二君)’으로 요약되는 절대왕권에 대한 신하의 충(忠) 개념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러나 실제 조선 유학에서 충의 개념에 관한 논의는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왕에게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는 논리는 엄밀히 말해 퇴계로 대표되는 주리론자(主理論者)들의 입장에 기반해 있었다. 조선의 유학은 이기론에 대한 해석을 놓고 크게 두 대립적인 학파를 형성했다. 퇴계학과와 율곡학파가 그것이다. 전자는 리(理)와 기(氣)를 엄연히 구분하여 이의 질서가 기를 다스린다고 보는 주리론(主理論)의 입장을 취한다. 반면 후자는 기(氣)의 작용을 중시하는 주기론(主氣論)의 입장을 취한다.¹⁴⁾

이기론에 대한 철학적 해석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 왕권(王權)중심주의와 신권(臣權)중심주의의 태도가 그것이다. 전자가 왕의 권위를 옹호하는 왕권정치를 표방한 반면, 후자는 봉당정치를 통해 사대부의 현실참여를 강조했다. 정치적 입장이다른 만큼 충(忠)의 개념에 대한 해석 또한 상이했다. 전자에 있어 충의 대상은 구체적 인간으로서의 왕이었지만, 후자에 있어 충의 대상은 추상적

13) 김충렬, 앞의 책, 90면.

14) 김형찬, 앞의 글, 57~58면 참조.

인 이념으로서의 왕이었다. 따라서 왕도(王道)의 이념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왕은 언제든 교체 가능한 대상이었다. 왕 또한 추상적인 리(理)를 구현하는 기(氣)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작품에 등장하는 성삼문과 신숙주는 각각 '주리론자'와 '주기론자'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성삼문에게 왕은 유일무이한 궁극적 실체인 리(理) 자체로서 맹목적인 충성의 대상이다. 하지만, 신숙주에게 왕은 리의 추상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그릇으로서의 기(器)에 불과하므로 언제든 충성의 대상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충(忠) 개념은 조선의 현실정치에서 그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상대적인 해석을 허용했던 열린 개념이었다. 그리하여 '명분론'과 '실리론'이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축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전하」는 윤씨가 자결하고 신숙주가 세조를 따르는 장면에서 끝난다. 즉 극중 연극이 끝남과 동시에 작품도 막을 내리는 것이다. 이러한 결말 구조는 비정상적이다. 일반적으로 극중극 형식은 연극이 끝난 다음 다시 원래의 현실로 되돌아오는 구조를 취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로 인해 작품의 서두에서 제기된 문제, 충신과 역적의 구분은 영원히 미결 상태로 남겨진다. 이는 그 해답을 독자의 자유로운 상상에 맡기고자 하는 작가의 열린 역사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역사에 대한 전단적(專斷的) 판단을 경계하는 작가적 입장은 시종여일하게 엄수된 것이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신숙주의 대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결말부 또한 신숙주의 대사로 끝맺고 있는 점은 시사적이다. 회미하게나마 작가의 정치적 입장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즉, 충(忠)으로 대변되는 군신의 관계는 일의적이 아닌 다의적 관계이며, 수직적 서열관계가 아닌 수평적 상호관계라는 암시이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작품의 제목인 '전하(殿下)'는 불사이군(不事二君)의 경직된 유가윤리에 대한 패러디로 읽힌다. 그것이 세조를 지칭하는지 단종을 지칭하는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존칭의 주체는 언제라도 교체될 수 있는 가변적인 존재라는 점일 것이다.

정찬손 : ...사위녀석은 예나제나 전하에 대한 충성은.....

세조 : 어떤 전하야?

정찬손 : 네?

세조 : 이 나라엔 전하가 둘이 있다고 믿는 녀석들이 있어.

이처럼 「전하」는 열린 역사의식을 통해 고식적인 전통의 개념을 수정한다. 계유정란의 역사적 평가를 놓고 군신 관계를 수평적인 권력관계로 파악하여 충(忠)의 관습적 의미를 깨트리고 다층화한다. 그리하여 충의 윤리가 왕권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 아닌, 왕권에 대한 비판적 견제를 지향했으며, 이를 통해 끊임없이 권력의 도덕성을 확보하려는 진보적인 정치 윤리였음을 암시한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에 반영된 성리학적 세계관은 「부자유친」과 비교할 때 훨씬 탈근대적이고 진보적이다. 전작보다 20여 년이나 앞서 발표된 작품임에도 주제의식의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을 보여준다.

다만, 이 작품은 표현형식의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작품에서 작가의 열린 전통관은 극중극이라는 형식을 빌어 표현된다. 하지만 극중극 구조는 근본적으로 서구의 연극적 전통에 속하는 것이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유행한 서사극이나 부조리극의 단골 수법이다. 즉, 표현양식의 측면에서 서구의 전통에 전적으로 빚지고 있다. 우리 전통극의 형식을 새롭게 계승하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요컨대 「전하」의 경우, 전통에 대한 인식은 새롭고 주체적이지만 이를 표현하는 형식은 그렇지 못하다. 내용과 형식의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유가 전통을 온전히 구현한 작품으로 보기 어렵다.

5. 의(義)의 사상과 양기주망의 논리

이운택의 「시골선비 조남명」(2002)은 조선의 대표적 사림인 남명(南冥)

조식(曹植)의 삶을 조명한 희곡이다. 출사(出仕)를 거부한 채 초야에 묻혀 살다 간 남명의 삶을 한 폭의 산수화처럼 그려내고 있다. 총 3막3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남명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3막의 구분은 남명의 의식이 변화되는 단계를 반영한다. 1막은 세상을 거부한 채 은둔하는 남명의 모습을, 2막은 남명이 서당을 열고 세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그리고 3막은 목숨을 걸고 조정에 상소문을 올리는 모습을 묘사한다. 이러한 전개과정은 곧 남명의 의식이 현실도피→현실참여→현실개혁의 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작품에서 가장 주목되는 이미지는 '매화나무'이다. 도입부에서 에필로그에 이르기까지 무대의 한켠에는 줄곧 매화나무가 서 있다. 이때 매화의 이미지는 남명의 정신을 함축적으로 대변한다. 매화는 지조와 곧은 절개 등 유가적 '선비정신'을 표상한다. 이때의 선비정신은 '의(義)'의 개념과 연관된다. 의(義)는 충(忠)의 개념을 사회 전반으로 확장한 실천윤리로, '시의(時宜)를 찾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시대가 도가 행해질 만한 조건을 갖춘 시기인가, 군주가 도를 실천할 자질을 갖추었는가를 판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약 시의에 맞지 않으면 출사하지 않는 것이 선비의 절개라고 여겼다.¹⁵⁾

따라서 남명의 갈등은 이 시의문제로부터 시작된다. 1막에서 어머니는 출사를 거부한 남명을 꾸짖으며 세상에 나가라고 하지만, 남명은 시의를 들어 어머니의 권유를 물리친다.

어머니 : (서러워진다) 그럼 네 지식이 그렇게 알았더냐?!

조식 : 내 지식이 세상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지금까지 네가 배운 것이 무엇이란 말이나? 뜬구름 잡는 황당무계한 허사를 익혔느냐?

조식 : 내 지식이 지금 세상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뜻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어머니, 배웠다고 생각이 같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

15) 김낙진, 『義理-공존과 공익을 위한 모색』,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506~507면 참조.

수가 있습니다.

군자의 도가 실현될 수 있는 때가 아니므로 출사하지 않겠다는 남명의 태도는 일견 윤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태도의 이면에는 정치적 욕망이 은폐되어 있다. 그가 출사를 거부한 진짜 이유는 시의문제가 아니라 묘지기라는 관직의 낮음에 있었기 때문이다. 시의를 내세워 이러한 허위 의식을 가린 채, 그는 현실만을 닦하며 산중 독서인으로 무위도식한다. 결국 그의 은둔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거절당한 데 대한 울분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욕구불만은 세상을 보는 그의 시선을 비뚤어지게 한다. 남명이 이러한 자신의 허위의식을 직시하고 반성하게 되는 것은 어머니를 통해서이다.

조식 : ……저는 제 아버비를 위해 상소문을 쓰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언젠가 이 세상에 대해 상소문을 쓰리라!

어머니 : 그렇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려무나. ……(중략)……

조식 : 지금 세상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몇이나 되겠습니까. 입 바른 소리 잘 하는 선비들이 오히려 사간원에 들어가기 어려운 게 요즘 세상 형편이고, 그나마 몸 조심해 가며 간언하는 선비들까지 추풍낙엽처럼 목이 떨어지는 세상입니다. ……(중략)……

어머니 : (운다) 그렇다면, 이놈아! 이 첩첩산중에서 왜 글을 읽느냐. 차라리 오늘부터라도 똥지게 지고 논밭으로 걸어들어가거라.

현실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현실 닦만 하는 선비의 비굴하고 위선적인 처세에 어머니는 독설을 퍼붓는다. 아울러 아내 또한 ‘저 혼자 고결하고 잘난 인재들이 세치 혀 말고 가진 게 무어 있으며, 세상을 위해 하는 일이 무어 있느냐’고 비판에 가세한다. 여인들의 이러한 비판은 남명의 의식을 결정적으로 돌려놓는다. 이처럼 작품에서 어머니와 아내는 남명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촉매역할을 한다. 이런 상황설정 은 매우 역설적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의 의식이 여성에 의해 교정된다는 점에서 그렇고,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자에 의해 교화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현실에 대한 작가의 열린 시각을 엿볼 수 있다. 남명과 여인들의 관계를 통해 남성 중심, 지식인 중심의 계급질서를 상징적으로 뒤집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부장적 권력관계의 전도는 군신간의 권력관계를 뒤집는 남명의 혁신 사상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사적이다. 무지한 여성들에 의해 역설적으로 얻어진 남명의 현실인식은 이후 특유의 실천사상인 경의(敬義)사상을 낳기에 이른다. 2막은 남명의 이러한 사상적 변모과정을 밀도 있게 묘사하고 있다. 2막 들어 남명은 처가로 거처를 옮겨 후학들을 가르친다. 그 과정에서 철저히 현실에 입각한 사상을 강론한다.

조식 : 일상적인 일을 통해 이치를 깨닫는 것, 이것이 하학상달(下學上達)의 지혜요 가히 삶의 철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오. (중략) 일상적인 삶의 귀중함을 생각지 않고, 산사의 도사나 중처럼 성리(性理)의 깊은 뜻을 탐구하려고 들면 끝내 마음에 실득(實得)이 없는 것입니다.

조식 : 경(敬)! 의(義)! 이 두 글자는 하늘의 해와 달처럼 영원한 것이요, '경'은 곧 내명자경, 안으로 마음을 밝히는 것이요,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비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경이오. (칼날로 세우며) '의'는 곧 외단자의, 밖으로 의로운 행동을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오. 아무리 정당한 생각과 마음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없는 법. 나는 요즈음 이걸 깨닫고 있소. 우리 유생들에게 이게 문제였던 것 같소.

남명이 설파한 경의사상은 곧 '몸의 사상', '실천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 '경의(敬義)'는 '의(義)'의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리고 의의 개념은 다시 이기론(理氣論)을 전제한다. 정이(程熈)에 따르면, “물(物)에 있는 것은 리가 되고, 물에 대처함에서는 의(義)가 된다.”¹⁶⁾ 여기서 우리는 의(義)의 개념이 사물의 이치인 리(理)를 구체적으로 발출하는 힘, 즉 기(氣)의 개념으로부터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로서의 의는 리와 합

16) 위의 글, 494면에서 재인용.

쳐져 의리(義理) 개념을 이름으로써, 사물의 이치를 공명정대하게 구현함을 뜻하게 된다.

이처럼 의(義)는 실천개념으로, 이치를 구체적으로 행하는 데 치중한다. 따라서 의를 중시한 남명의 사상은 주기론(主氣論)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남명의 사상은 주기론자들의 '신권정치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는 상하 주종관계에 있던 군신관계를 횡적 쌍무관계로 되돌리고, 늘 관(官)에 짓밟히던 민생을 본래의 위치로 제고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치자(治者)들에게 물이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엮을 수도 있는 것처럼, 백성은 군왕을 추대하기도 하고 정권을 뒤엎기도 한다'는 혁신적인 정치이념에 이르게 된다.¹⁷⁾

나아가 남명에 의하면, 선비는 백성의 편에 서서 치자(治者)를 비판하는 것이 본연의 직능이다. 말하자면 선비는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입장에서 서서 의리적인 가치기준을 통해 항상 현실을 비판하고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삼강오륜이 내세우는 '군신유의(君臣有義)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을사사화(乙巳士禍)의 피바람 속에서 남명이 조정에 상소문을 올리게 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처럼 3막에 이르러 남명은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가장 극명하게 밝힌다. 단양현감에 제수한다는 임금의 명에 대해 그는 목숨을 건 상소를 올린다.

조식 : ...지금 배운 자들이 사라졌으니 세상의 중심이 없어졌고 나라 일이 이미 그릇되어서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인심도 떠났습니다. ... (중략) ... 전하와 뜻있는 신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러스 :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밝혀내어 도록을 내십시오 (코러스 : 도록을!) ... (중략) ... 왕도의 법이 (코러스 : 왕도의 법!) 왕도의 법답지 않으면 (코러스 : 왕도의 법!) 나라가 나라답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하다면, 전하의 어머니이신 문정왕후께서는 깊숙한 궁중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으시고, (코러스 : 과부, 과부, 과부) 전하는 선왕의 고아이실 뿐입니다.

17) 김충렬, 「조식의 학문과 사상」, 한국철학회 편, 『한국철학연구(中)』, 동명사, 1978, 209~210면 참조.

당시 을사사화로 어린 나이에 등극한 문종은 문정왕후의 섭정(攝政) 아래 있었다. 척신들에게 휘둘리는 왕가의 현실을 남명은 과부와 고아의 처지에 비유한 것이다. 말 그대로 죽음을 담보로 한 직언이었다. 그의 상소문은 곧 왕이 왕답지 못할 때는 언제라도 교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함축한다. 이처럼 조선의 선비정신은 왕권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이 아니라, 거침없는 비판과 도전을 통해 의(義)를 구현하고자 했다. 결국 상소문에 감화된 명종은 ‘숨어 사는 선비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전례를 들어 남명의 목숨을 구해준다.

“내 언젠가 세상에 대해 상소문을 쓰리라”는 도입부의 결의는 결말부에 이르러 성공적으로 구현된다. 남명의 상소문은 에필로그의 매화나무와 만나 절개와 의리를 목숨보다 중히 여겼던 조선 유학자들의 선비정신을 현현하는 메타포가 된다. 그리하여 무대는 그 자체로 한 폭의 사군자화(四君子畫)를 이룬다.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의로운 길을 걸었던 남명의 삶은 조선 유학의 정수를 가장 실천적으로 구현한 사례라 할 만하다. 이러한 유가의 실천이념을 작가는 적절한 고증을 통해 효과적으로 작품에 반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시골선비 조남명」은 유가윤리의 긍정적 쓰임새를 뚜렷하게 예시한 희곡이다.

아울러 주제의식뿐 아니라 표현형식의 측면에서도 이 작품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시조창(時調唱)’과 ‘양반춤’의 도입을 꼽을 수 있다. 이 작품에는 세종·성삼문·박팽년, 조식, 김지하 등의 시가 시조창 형식의 노래로 군데군데 삽입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대사 전반을 시조창조(調)로 읊조리도록 지시되어 있다. 아울러 양반춤, 택견 등 전통무용의 요소가 장면 곳곳에 적절히 삽입된다. 인물 대다수가 양반 신분으로 등장하는 이 작품에서 시조창과 전통무는 조선조 양반문화의 일면을 재현하는 데 성공적으로 기여한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의 실험은 종래의 전통계승 노력과 비교할 때 획기적이다. 종래의 전통수용이 주로 민중문화 중심으로 이뤄진 데 반해, 이 작품은 그 주제와 형식의 양 측면에서 명실공히 고급문화의 전통을 수용

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골선비 조남명」은 우리 회곡사에 있어 유가의 전통사상과 그 향유양식을 탁월하게 재현한 수작이라고 평가될 만하다. 아울러 도덕성이 실종된 오늘날, 이 작품이 강조하는 의(義)의 윤리는 이익사회의 한계를 극복할 효과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유가전통의 탈근대적 가치를 밀도 있게 구현하고 있다.

6. 맺음말

이상으로 한국 현대회곡에 반영된 주자학적 세계관과 그 탈근대적 성격을 조명해 보았다. 이기론에서 출발한 유가사상은 효(孝)와 충(忠)의 개념을 거쳐 의(義)의 개념에 이른다. 가족적 도덕원칙으로서의 효가 정치적 도덕원칙인 충으로 발전하고, 다시 사회적 도덕원칙인 의에 도달함으로써 유가윤리는 완성된다. 이러한 유가윤리의 형성원리를 「부자유친」, 「전하」, 「시골선비 조남명」의 세 작품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었다. 본론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이들 작품의 의의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부자유친」은 그 표현형식의 참신함에도 불구하고 주제의식의 측면에서 퇴행적이다. 자효의 의미를 서구의 근대적 사유체계로 환원시키는 한계를 보인다. 「전하」의 경우 충의 의미를 수평적 권력관계로 놓고 유가윤리를 새롭게 조명한 점에서 근대적 사유를 넘어선다. 그럼에도 그 표현형식의 외래적 타성이 주제 전달을 제약한다. 주제와 형식의 측면에서 공히 유가사상의 탈근대적 전망을 보여준 작품은 「시골선비 조남명」이다. 비교적 역사적 인물의 삶을 그 사상적 측면에 주목하여 적절히 조명하고 있다. 유가의 실천이념과 그 문화적 향유방식을 완성도 높게 재현함으로써 근대적 세계관의 결핍을 메우고자 한다.

요컨대, 우리 현대회곡은 유교윤리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입장에서 유가전통을 재해석하는 방향으로 전개돼 왔다. 형식중심의 실험

에서 형식과 사상의 균형을 확보하는 쪽으로 전통계승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아직 대다수의 현대회곡은 유가사상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타성적으로 부각시키려는 관성에 여전히 젖어 있다. 혹은 소재의 차원에만 주목해 그 이면에 작용하는 사상적 맥락을 깊이 천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우리 회곡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오늘날 우리 회곡이 겪고 있는 형식의 혼란은 사상의 혼란에서 야기된 것이다.

유교사상의 근간은 가족주의에 기초한 '윤리적 인간의 완성'에 있다. 그러나 서구의 근대사상은 가족관계를 포함한 모든 위계질서와 윤리체계를 일종의 권력기제, 억압기제로 파악한다. 따라서 가부장적 윤리의 해체를 통해 '절대개인'의 개념을 내세우고, 모든 인간관계를 법적인 계약관계로 환원시킨다. 이처럼 공동체가 붕괴되고 가족이 해체된 결과, 윤리 부재의 탈산업사회는 더 큰 갈등과 마찰에 직면해 있다.¹⁸⁾ 이런 현실에 비추어볼 때 효, 충, 의의 윤리규범을 통해 '덕치(德治)'를 구현하고자 한 성리학적 세계관은 근대의 병폐를 치유하는 유효한 처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교전통 속에서 우리 고유의 정신적 가치를 발견하여 이를 작품에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탈근대기의 문학이 담당해야 할 핵심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유교전통의 긍정적 가치에 대한 발견과 계승이 절실히 요청된다. 아울러, 세계관의 발견 못지 않게 이에 상응하는 표현형식의 발견 또한 시급하다. 세계관은 그것을 표현하는 적절한 형식을 얻을 때 비로소 온전한 예술로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기존의 민속연희 외에 궁중연희나 사대부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그리고 이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오태석, 『오태석회곡집2』, 평민사, 1994.

18) 함재봉, 앞의 책, 303~319쪽 참조.

- 신명순, 『신명순 희곡집1-우보市の 어느 해 겨울』, 예니, 1988.
- 이운택, 「시골선비 조남명」, 한국연극협회 편, 『2001년 한국대표희곡선』
(제6집), 집문당, 2001.
- 오태석·서연호 대담, 『오태석 연극 : 실험과 도전의 40년』, 연극과인간, 2002
- 미야지마 히로시, 『양반』, 노영구 옮김, 강, 1996
- 편집위원, 「창간사」, 『전통과 현대』 창간호, 1997,
- 이승환, 『유교담론의 지형학』, 푸른숲, 2004.
- 함재봉, 『탈근대와 유교』, 나남출판, 1998.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12, 한국정신문화연
구원, 1991.
- 김형찬, 「理氣-존재와 규범의 기본개념」,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
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 김낙진, 「義理-공존과 공익을 위한 모색」,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
원, 2002.
- 이강대, 『주자학의 인간학적 이해』, 예문서원, 2000.
- 혜경궁 홍씨, 『(내 붓을 들어 한의 세월을 적는다) 한중록』, 이선형 옮
김, 서해문집, 2003.
- 김충렬, 『중국철학산고(1)』, 온누리, 1988.
- 김충렬, 「조식의 학문과 사상」, 한국철학회 편, 『한국철학연구(中)』, 동
명사, 1978.
- *주제어 : 한국현대희곡, 성리학, 탈근대, 이기론, 효, 충, 의, 오태석, 신
명순, 이운택

■ Abstract

A Study of Confucian Thought reflected to Korean Contemporary Drama

Lim, Joon-seo(Soongsil Univ.)

The objective of this dissertation is to study how confucian thoughts, a Korean traditional ideology, is reflected to contemporary drama. The method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meaning 'filial duty', 'loyalty', 'justice' on how these are reflected on the drama text. The analyzed works are [Bu-Ja-Yu-Chin], by Oh Tae-Suk, [Jeon-Ha] by Sin Myeong-Sun and [Joh Nam-Myeong, a learned man of country] by Lee Yun-Taek.

[Bu-Ja-Yu-Chin] is taking about the meaning 'Ja-Hyo' of Confucian thought with a feud between king Se-Jo and Prince Sa-Do. but this work shows some limitation in the subject which focuses on only deviated phenomenon of Confucian thought neglecting its intrinsic nature. [Jeon-Ha], the meaning 'loyalty' is issued though the relationships among king Se-Jong, and his retainers. This work is beyond the modern thinking of Confucian thought because it regards the relationship between king and his subject as horizontal relationship. And yet it also has limitation in Western impact of expression way. [Joh Nam-Myeong, a learned man of country] focuses on 'justice' through the scholar Joh-Shik's inner discordance. It highlights the function of Confucianism ethics as the code of conduct and revives the leisure culture of scholars.

As we have side above, most of modern drama focus on side effect rather than right function. For the post modern literature, discovery and inheritance of positive confucian value is desperately needed.

(■ Key words : korean contemporary drama, confucianism, post-modernity, discours for Ri-Gi, filial duty, loyalty, justice, Oh Tae-Suk, Sin Myeong-Sun, Lee Yun-Taek)